

한국, 이란 원정서 귀중한 승점 1점 획득



▲ 지난 12일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A조 4차전 대한민국 대 이란의 경기.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벤투호가 이란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다.

1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전날 오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4차전 원정경기에서 이란과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손흥민(토트넘)이 후반 3분 역습 상황에서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31분 알리레자 자한바크시에게 헤더로 동점골을 내줘 승리를 아깝게 놓쳤다. 비록 최상의 시나리오인 승점 3은 아니지만 부담스런 이란 원정에서 승점 1을 따낸 것은 큰 수확이다. 이로써 최종예선 2승 2무 승점 8을 기록한 한국은 이란(3승 1무 승점 10)에 이어 조 2위를 지켰다.

이날 무승부로 한국과 이란의 상대 전적은 9승10무13패가 됐다. 아자디스타디움 원정 첫 승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아자디스타디움 원정 역대 전적은 8차례 맞대결에서 3무 5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최근 이란 원정 3연패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FIFA 세계랭킹 22위(한국 36위)로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 가운데

순위 가장 높은 이란은 최종예선 3연승 포함, 최근 A매치 10연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한국은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초반부터 볼점유율을 높이면서 이란에 맞불을 놓았다. 특히 상대지역에서 기회가 날 때마다 과감한 슈팅으로 이란 수비진을 위협했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3분 만에 귀중한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재성이 후방에서 한 번에 찔러준 통패스를 손흥민이 받아 이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열었다. 손흥민은 지난 시리아전에 이어 2경기 연속 A매치 득점을 기록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아자디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 원정 A매치에서 득점을 올린 것은 2009년 2월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전 박지성의 헤딩골 이후 무려 12년 만이다.

이란은 실점을 내준 뒤 공격 숫자를 늘리고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란은 후반 31분 자한바크시가 헤딩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두 팀은 끝내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은 다음달 11일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에서 홈경기를, 16일에는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제압 "WS 2연패 도전"

LA 다저스가 132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에서 만난 지구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꺾고 월드시리즈(WS) 2연패를 향한 걸음을 이어갔다.

다저스는 14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NLDS·5전 3승제) 최종 5차전에서 샌프란시스코를 2-1로 물리치고 내셔널리그 챔피언결정전(NLCS) 진출을 확정했다. '디펜딩 챔피언' 다저스는 16일부터 월드시리즈 티켓을 놓고 애블랜타와 7전 4승의 NLCS에 돌입했다.

다저스와 자이언츠 두 팀이 모두 내셔널리그 소속이 된 1890년 이후 두 팀 간 포스트시즌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다저스가 '브루클린 브라이트그롭스'라는 이름으로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AA)에 속해 있던 1889년 두 팀은 각 리그 우승 팀 자격으로 '월드시리즈'라는 타이틀을 걸고 맞붙었던 적이 있다. 11전 6승제로 열린 당시 시리즈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전신 뉴욕 자이언츠가 6승 3패로 승리를 차지했다.

정규리그에서 이미 2500번 이상 맞붙은 라이벌 사이를 증명하듯 두 팀은 이날 최종 5차전에서도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다. 다저스는 6회 초 무키베츠의 좌전 안타와 2루 도루에 이어 코리 시거의 2루타를 쥘어 선취점을 올렸다. 그러나 6회 말 자이언츠 도러프의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균형을 깨뜨린 건 정규시즌 타율이 0.165밖에 되지 않았던 코디 벨린저였다. 9회초 1사 1, 2루에 타석에 들어선 벨린저는 2루 주자 저스틴 터너를 불러들이는 적시타로 팀에 2-1 리드를 안겼다. 1점차 리드를 잡은 다저스는 9회말 '에이스' 맥스 셔저를 투입해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선발 로건 웹은 7이닝 4피안타 7탈삼진 1볼넷 1실점으로 호투했으나 팀 패배에 빛이 바랬다. 다저스의 실질적인 선발 투수였던 유리아스도 4이닝 3피안타(1홈런) 1실점으로 제 몫을 다했으나 승패없이 물러났다.

8회말 등판해 1이닝을 삼자범퇴로 끝낸 켈리 랜슨이 승리 투수가 됐다.



▲ 지난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내셔널 리그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꺾은 후 LA 다저스의 포수 윌 스미스(왼쪽)와 투수 맥스 셔저(31)가 환호하고 있다. 사진=usatoday.com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